

행운에 대한 신념과 창업 기회 역량과의 관계에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황보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영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홍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국 문 요 약

성공한 창업가들이나 저명인사들에게 성공의 요인을 물어보면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주목해야할 사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운과 관련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신념은 현실적으로 지배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행운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속성으로 운을 통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선행연구들이 주로 행운을 기업가적 자질 유형 중 내적 통제 위치(Internal Locus of Control)로 그치고 노력에 의해 창업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논리에 머문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어떠한 노력이 행운을 가져오는 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운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확증편향을 오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운에 대한 신념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선행 연구의 행운에 대한 신념 질문지를 사용하여, 행운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우연기술을 매개로 하여 기회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종속 변수로 기회역량을 설정한 이유는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과정이야말로 창업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기존 연구에 기반을 두었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총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첫째, 행운의 신념은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연기술의 하위요인 중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만이 기회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셋째,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는 행운신념과 기회역량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창업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핵심 역량인 창업 기회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행운에 대한 높은 신념을 가지고 우연 기술 중 인내성과 낙관성, 위험감수 성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이며 논리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창업 보육 및 교육 담당자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자들을 선발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핵심주제어: 행운에 대한 신념, 우연 기술, 창업기회 역량

I. 서론

1.1 연구배경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의 저자 짐 콜린스는 조사대상 28개 기업 중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한 11개 기업들의 경영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경영자들은 그들의 성공 비결의 첫째 요인을 ‘운’이라고 하였다고 한다(짐 콜린스, 2002).

사이토 히토리(2012)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일본 사업소득 전국 고액납세자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들었던 인물이다. 사이토 히토리도 그의 저서에서 성공의 요인을 운과 기회라 말하고 있다. 사이토 히토리(2012)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운이 없다고 생각해보려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이 파스퇴르는 과학적 발견의 절반은 운에 의한 것이지만, 그 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하였다(Dunbar & Fugelsang, 2005).

Dunbar & Fugelsang(2005)는 이러한 파스퇴르의 말을 증명하

* 본 논문은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김홍태·황보윤(2017) 발표 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함

** 주저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yun88@kookmin.ac.kr

*** 교신저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youngkim@korea.ac.kr

**** 공동저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legendo197@naver.com

· 투고일: 2019-09-10 · 수정일: 2019-10-13 · 게재확정일: 2019-10-26

기 위해 9개월 동안 실험에서 나온 결과 281개를 분석하였다. 281개의 결과 중 52%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우연에 의해 발견한 것이었다. Dunbar & Fugelsang(2005)는 왜 과학자들이 운이 좋게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지 주목하였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실험하기 때문에 우연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나 결과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토머스 J. 스탠리(2014)는 20년간 평균 순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1,000명의 부자 가운데 733명을 선별하여 집중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한 결과 설문과 인터뷰에 응한 부자의 12%가 자신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으로 ‘운’을 뽑았다. 다만, 스탠리는 인터뷰에 응한 부자들의 비결은 기회 선택, 위험 감수 등의 태도에 있었다고 말한다. 즉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운과 관련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공의 비결이 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배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많지 않았다. 과학적 검증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행운을 초능력 또는 초감각 지각(Extrasensory Perception, ESP)과 연결하거나 행운을 외부 환경에 의해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으로만 간주했기 때문이다.

1930년 대 듀크 대학의 심리학자 Joseph Banks Rhine 박사와 동료들은 카지노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얼마나 행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준적인 초능력 검사를 위해 현재 ‘체너 카드’로 알려져 있는 다섯 장의 기호 카드를 개발하여 실험한 결과, 당시 수행된 대부분의 실험은 행운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행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마이클 브룩스, 2017).

Rotter(1966)가 자신이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설명하는 통제 위치 개념을 제시하면서 우연과 운에 대해 다시 연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Joseph Banks Rhine 박사의 실험 이후 운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외적 통제의 신념에 의거하여 운을 외부 요인으로 보고 무작위하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우연과 운을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는 설문 및 인터뷰 결과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 Nickerson(1998)은 사고와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 혹은 선호하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무의식적인 인지과정을 확증편향으로 정의하였다. 확증편향이 있으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범주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확증편향은 자신의 믿음을 지지해주거나 확인해주는 증거만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Darke & Freedman(1997)는 운을 믿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화들, 이론적 추측들, 그리고 경험적인 것들을 토대로 운에 대

한 신념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은 그룹과 신념이 낮은 그룹을 판별하기 위한 행운에 대한 신념 질문지(the Belief in Good Luck Scale)을 고안하였다. 이후 행운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행운에 대한 신념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자기계발, 과학, 심리학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가 조금씩 시도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연구 분야에서는 행운을 기업가가 가지는 자질 중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로서 성공한 기업가는 내적 통제 위치를 갖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증적으로 어떤 경로로 내적 통제 위치를 갖는지 규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행운을 구체적으로 창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써 행운에 대한 신념이 창업역량 중 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실증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운에 대한 신념, 우연 기술, 기회 역량을 연구 주제로 각각 진행되어 왔던 기존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 행운에 대한 신념, 우연 기술, 기회 역량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행운에 대한 신념을 우연기술과 기회역량과의 관계 규명의 독립변수 다룬 이유는 실제 생활과 특별히 창업 과정에서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는 설문결과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범주화’하는 확증편향(Nickerson, 1998)의 오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해석하여 ‘운이 좋았다 또는 운이 나쁘다’는 식의 사후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하지 않고, 행운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속성으로 운을 통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본 전제를 바탕으로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은 사람이 기회역량이 더 높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Wiseman(2004)의 연구가 유전적 요인인 Big5 성격 요인에 근거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기회 역량을 후천적 훈련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우연 기술이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의 매개변수가 되는 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회 역량 개발 방법으로 행운에 대한 신념과 우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의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적 의의는 창업자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인 내적 통제 위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창업자의 기회 역량을 높이는 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행운에 대한 신념과 우연 사건 관계

Rotter(1966)는 자신이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와 관련된 신념체계를 설명하는 개념을 통제 위치라 하였다. 즉 특정사건을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특성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내적 통제에 대한 신념이라고도 부른다. 내적 통제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통제권이 우리 내부에 있다고 믿고, 외부 요인이 자신의 특정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갖는다. 내적 통제 신념을 갖을수록 미래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실력 배양을 한다.

반대로 외적 통제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운(luck), 우연(chance), 운명(fate)에 의하여 특정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본다. 운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외적 통제의 신념에 의거하여 운을 외부 요인으로 보고 무작위하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Sims & Baumann(1972)은 유사한 토네이도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까라는 질문에 Rotter의 통제 위치를 적용하였다. 토네이도의 세기, 지역 산업의 특징 등 다양한 환경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실시한 연구에서 사망자 수가 적은 지역의 사람들이 더 내적 통제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내적 통제 위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이 살아남게 된다고 보았다. 내적 통제 신념은 환경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이다.

Weiner(1986)는 Rotter(1966)의 통제 위치의 개념을 더 발전시켜 성공과 실패를 감정적인 측면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설명하는 귀인이론을 정리하였다. 환경에 의한 인간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행동주의적 관점보다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시도에서 귀인이론은 등장하였다. 인간행동의 원인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귀인이론이다. 귀인(attribution)은 원인의 귀착의 줄임말로 개인의 행동이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뜻한다.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귀인하느냐에 따라 후속 행동과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내적요인으로 귀인시키면, 외적요인으로 귀인시킬 때보다 동기가 더 증진된다고 본다.

귀인이론은 학습의 성패 원인을 주로 노력, 능력, 과제의 난이도, 행운 등의 4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고 이 4가지 원인을 인지하는 방법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4가지 요인은 원인의 소재, 안정성, 통제가능성으로 분류한다. 원인의 소재는 내적 통제의 신념과 외적 통제의 신념에 해당된다. 내적 통제의 신념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성취동기를 갖게 하여 성공은 본인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도전하게 만든다. 반대로 외적 통제의 신념이 있는 사람은 성공은 과제가 쉬웠거나 단지 운이 좋아서라고 여기게 된다.

원인의 안정성 요인은 원인이 상황과 시간에 따른 변화정도

에 관한 것이다. 안정성 요인은 능력과 과제 난이도이다. 안정성 요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도 관련되어 있다.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능력이나 과제 난이도로 간주할 경우, 미래에 비슷한 과제 난이도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것이다. 또한 능력은 고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안정적 요인이다. 불안성 요인은 노력과 행운이다. 노력으로 기인하는 경우 자신의 의지에 따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적이다. 통제가능성 변인과 통제 불가능 변인의 구분은 원인이 학습자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느냐와 능력, 과제 난이도, 행운 등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변인이다. 통제가능 차원은 자신이 미래를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귀인하면 다음에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행운을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귀인하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므로 계속 행운이 계속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Weiner(1972)의 연구를 기반으로 안정성 요인과 통제 가능성 요인이 높아질수록 내적 통제의 신념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Anderson, 1983) 그러나 실제로 운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다. Langer(1975)는 사람들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들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낙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은 운에 대한 신념이라고 주장하였다(Rothbaum, et al., 1982).

Rothbaum, et al.(1982)도 통제 불가능한 조건의 상황이라도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Keinan(1994)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더 미신적이 된다는 연구를 하였다. 걸프전 당시 미사일 폭격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이 안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미신을 믿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낙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위험감수성이 커지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상이나 선물을 받아 행복감을 느끼거나 운이 좋다고 느끼는 긍정적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위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위험감수 행동도 높아진다는 것이다(Arkes, et al., 1988).

Darke & Freedman(1997)는 운을 믿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화들, 이론적 추측들, 그리고 경험적인 것들을 토대로 운에 대한 신념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은 그룹과 신념이 낮은 그룹을 판별하기 위한 행운에 대한 신념 질문지(the Belief in Good Luck Scale)를 고안하였다. Weiner, et al.(1972)이 제시한 이론을 더 발전시켰다. 자신이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행운에 대한 신념으로 연결했다. 즉, 운이 좋은 사람이나 운이 나쁜 사람이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신념이 미래의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운을 외부 요인으로 생각하여 불안정한 요인으로 본 Weiner, et al.(1972)

와 달리 운을 개인의 속성으로 간주하였다. 운을 개인의 내적 속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운은 안정적이어서 통제가 가능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운에 대한 신념은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고 있는 견해로 정의한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미래의 우연한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arke & Freedman(1997) 이후 행운의 신념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졌다.

Smith, et al.(1997b)이 초심리학과 운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을 행운에 대한 신념 설문문을 통하여 자신이 운이 있다고 믿는 그룹과 자신은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맞추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Joseph Banks Rhine 박사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행운에 대한 신념과 초심리학 영역에 있는 초감각지각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였다. 다만, 실험에 앞서 설문한 결과,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mith, et al.(1997a)는 영국 복권을 가지고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과 운이 나쁘다고 믿는 사람의 복권 당첨 결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이 자신이 더 복권에 당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검증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행운과 불운에 대한 경험이 인간의 인지과 행동,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심리학에서 진행되었다. 행운에 대한 신념과 우연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이와 같이 행운과 불운에 대한 경험이 인간의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낙관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행운의 신념이 낮을수록 우울증과 걱정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Day & Maltby, 2003). 이런 연구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로서 Taylor, et al.(2003)는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고양(self-enhancement) 성향일수록 신경대분비계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주장하였다. 행운의 과학적 연구가 대중의 관심을 얻게 된 것은 행운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은 Wiseman(2004)의 저서가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면서이다.

Wiseman(2004)은 운이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운이 나쁘다는 사람 400명을 모집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운이 좋다고 믿고 있는 사람의 공통 요인을 발견하였다.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하고 반응한다. 특히 인맥을 통해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운이 지속되어 자신의 삶이 살만하다고 낙관한다.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더 자주 웃고 긍정적이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유전적 요인으로 Big5 성격이론에 근거하여 외향성, 신경성, 개방성으로 보고 있다.

Jiang, et al.(2009)는 행운과 관련된 숫자를 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큰 모험적 투자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홍콩에서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 8을 보여준 그룹과, 반대로 꺼려하는 숫자 4를 보여준 그룹을 비교 실험하여,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지각하는 정도와 복권 구매 행동을 분석하였다. 행운과 관련된 숫자를 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큰 위험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 행운의 신념과 관련된 주요 학자별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 내용
Langer(1975)	사람들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들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
Rothbaum, et al.(1982)	통제 불가능한 조건의 상황이라도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낙관적으로 생각함
Arkes, et al.(1988)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위험감수성이 더 커짐
Darke & Freedman(1997)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은 그룹과 신념이 낮은 그룹을 편별하기 위한 행운에 대한 신념 질문지(the Belief in Good Luck Scale)을 고안
Smith, et al.(1997b)	행운에 대한 신념과 초심리학 영역에 있는 초감각지각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지만,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동전의 앞면을 더 잘 맞출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
Smith, et al.(1997a)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이 자신이 더 복권에 당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Day & Maltby(2003)	행운의 신념이 낮을수록 우울증과 걱정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남
Wiseman(2004)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하고 반응함
Jiang, et al.(2009)	행운과 관련된 숫자를 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큰 모험적 투자 성향을 보임
이병관·이국희(2015)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 결정을 더 강화시킴

이병관·이국희(2015)는 행운에 대한 경험이 모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컴퓨터와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행운과 불운을 경험하게 하였다. 게임에서 행운을 경험한 경우에는 확률이 높은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확실한 대안을 선호한다. 대신 확률이 낮은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확률은 낮지만 더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호한다. 즉,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더 강화시킨다. 위에서 언급한 행운의 신념과 관련된 주요 학자별 연구 내용은 <표 1>과 같다.

2.2 우연사건 통제와 우연 기술 관계

우연 사건 대처 기술에 관한 선행 연구는 개인의 진로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Baumgardner(1977)는 미국의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의 72%가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이나 사건에 의해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커리어에 있어서 행운과 우연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동의한다(Betsworth & Hansen, 1996). Betsworth & Hansen(1996)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23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63%와 여성 응

답자의 57%가 자신의 커리어는 뜻밖의 행운이 있는 사건 (serendipitous events)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Rojewski(1999)는 우연한 사건이란 사전에 계획을 하지 못한, 즉 발생하리라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정의한다. Mitchell, et al.(1999)도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위의 연구들은 우연한 기회와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사건을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최근의 우연연구는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능동성을 갖고 우연한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우연한 사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인생설계의 유연성을 확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므로, 우연적인 진로 기회를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 개인의 진로를 개발해나가는 것을 설명한 것이 계획된 우연 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이다. 우연이 연속되는 인생에서 개인은 우연 기술을 활용하여 우연 사건을 긍정적인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우연 기술은 개인이 우연한 사건을 접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로 발달의 기회로 만드는 학습 기술이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인지하고 기회로 발견하여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이 다섯 가지 우연 기술(우연 기술 5요인)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Mitchell, et al., 1999). 구체적 정의는 <표 2>과 같다.

<표 2> 우연 기술 5요인

우연 기술 5요인	요인 정의
호기심(Curiosity)	새로운 학습 기회를 탐색하는 기술
인내성 (Persistence)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하는 것
유연성 (Flexibility)	환경에 맞게 태도를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낙관성 (Optimism)	새로운 기회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 것
위험감수(Risk taking)	불확실한 결과가 예측되어도 행동을 취하는 것

김보영 외(2016)는 계획된 우연 이론을 기반으로 성격 5요인과 우연 기술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성격 5요인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구성된다.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기질이고, 친화성은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고 인정이 많은 성격이다. 성실성은 사회 규범과 원칙을 잘 지키며 책임감과 계획적인 경향을 말하고, 정서적 안정성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정서적 안정성이 낮으면 걱정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호기심이 많고 창의력이 많은 경향을 말한다. 연구 결과 개방성이 우연 기술의 다섯 가지 하위 변인과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우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연한 사건을 기회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지닌다고 한 Mitchell, et al.(1999)의 계획된 우연 이론과 일치한다.

Lounsbury, et al.(2003)은 개방성이 낙관성과 상관관계가 있

음을 밝혀냈다. 개방성은 변화, 혁신,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열린 마음이다. 낙관성은 어려움에 직면 하더라도 상황, 사람, 미래와 관련하여 희망적 관점에서 바라 보는 것이다. 낙관성이 높을수록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성도 높아진다. 또한 개방성이 높으면 위험감수에 대한 동기가 높아진다(Nicholson, et al., 2005).

우연 기술과 유사한 개념으로 세렌디피티(Serendipity)가 사용되기도 한다. 세렌디피티는 Horace Walpole이라는 작가가 Richard Boyle이 쓴 “The Three Principle of Serendip”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낸 단어이다. Walpole은 우연과 지혜에 의한 발견을 뜻하는 단어로 세렌디피티를 사용하였고, 우연에 의하여 행운의 발견을 만드는 능력으로 정의한다(강이철·정은식, 2006)

2.3 우연 기술과 기회 역량 관계

Mitchell, et al.(1999)은 인생은 우연한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창업자들에게는 우연한 사건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Schumpeter(1934)는 기회를 자원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시장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업가적 기회는 넓은 의미에서 자원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Schumpeter, 1934; Casson, 1982).

Kirzner(1973)는 기회란 다양한 자원을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더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시장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Kirzner(1997)는 기회를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장의 필요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자원 등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런 기회를 발견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익 창출을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간과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뜻밖의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좋은 아이디어라도 현실 세계와 기업가적 활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회로 구체화되어야 가치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Shane & Venkataraman(2000)은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과정이야말로 창업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창업기회와 관련된 용어는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국내 외에서는 주로 기회인식, 기회포착, 기회발견, 기회실현, 기회발현 등으로 사용되었다. 창업기회 인식이나 포착, 발견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다. 기회를 인식한 이후 자산의 것으로 만드는 기회 실현이나 발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공통된 주장이다.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회인지프로세스 모델 (Model of the Opportunity Recognition Process)에서 기회인지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가적 기민성, 정보의 비대칭성 및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개인적 특성(낙천주의, 자기효능감 및 창조성)으로 본다.

기회가 인식되면 기회평가도 뒤따르게 되며 기회평가는 특별한 형식이 예측되는 시장의 니즈나 자원들을 자유롭게 조사한다(Ardichvili, et al., 2003). Ardichvili & Cardozo(2000), Ardichvili, et al.(2003)는 기업가적 기민성, 정보의 비대칭성 및 사전지식, 사회적 네트워크기회가 기회 인지를 후천적 노력에 의해 개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회의 포착과 관련하여, 인지심리학자들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관점으로 환경을 인지하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연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파생된 개념이다(Kim, et al., 2014). Morris, et al.(2013)은 Man, et al.(2002)이 정의한 기회역량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기회인식과 기회평가로 제시하였다. 기회인식은 검색과 연결을 통해 잠재수익이 높은 변화된 상황 또는 간과된 가능성을 지각하는 능력이다. 기회평가는 기회의 내용 구조를 평가하여 상대적인 매력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문수영·황보윤(2011)은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 기회원천으로 작용한 요인을 창업의지의 성격(의도적/비의도적), 창업기회 발생배경(출처), 창업기회단서, 창업기회단서의 접촉상황(기회조우의 성격), 사업아이디어 활용, 창업자본금 중 자기자본비율로 보고 그들 사이의 독립성을 분석하였다.

우연기술과 기회역량과에 관계에 대한 근거로는 강재학·하규수(2015)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동기부여와 위험 감수성이 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통제 및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창업기회인식은 기업가 스스로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보았고,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과감히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강재학·하규수(2015)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의 매개적인 역할을 통하여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동기부여와 위험감수성은 창업기회인식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회 역량에 미치는 요인으로 우연 기술을 도입해 보도록 한다.

I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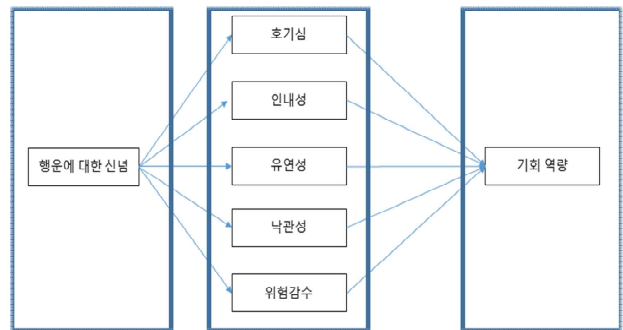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선행연구를 통해 행운에 대한 신념과 우연기술 일부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었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우연 기술과 상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행운에 대한 신념은 목

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와 능력개발을 더 촉진하여 목표를 이루는데 노력하게 만든다. 동기부여와 우연 기술 요인의 위험감수성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변인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밝히려는 세 가지 연구변인요인 모두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행운에 대한 신념, 우연 기술, 기회 역량으로 구성된 경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행운에 대한 신념이 우연기술의 매개역할로 창업 기회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행운에 대한 신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우연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고 그 후, 매개변수인 우연기술이 종속변수인 기회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를 기회 역량으로 둔 이유는 Shane & Venkataraman의 연구에 기반을 두었다. Shane & Venkataraman(2000)는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과정이야말로 창업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창업기회와 관련된 용어는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국내외에서는 주로 기회인식, 기회포착, 기회발견, 기회실현, 기회 발현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Darke & Freedman(1997)는 행운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우연한 사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Mitchell, et al.(1999)은 우연한 사건들은 우연 기술에 의해 발전되어 기회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우연한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은 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에서 기인한다(Kim, et al., 2014). Darke & Freedman(1997)와 Mitchell, et al.(1999)의 연구를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행운에 대한 신념은 우연 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행운에 대한 신념은 후기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행운에 대한 신념은 인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행운에 대한 신념은 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행운에 대한 신념은 낙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5: 행운에 대한 신념은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유연 기술은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호기심은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인내성은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유연성은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낙관성은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5: 위험감수는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유연 기술은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을 매개할 것이다.

- 3-1: 호기심은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을 매개할 것이다.
- 3-2: 인내성은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을 매개할 것이다.
- 3-3: 유연성은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을 매개할 것이다.
- 3-4: 낙관성은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을 매개할 것이다.
- 3-5: 위험감수는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을 매개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를 위하여 잠재변수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다음과 같다.

3.2.1 행운에 대한 신념 조작적 정의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은 그룹과 신념이 낮은 그룹을 판별하기 위하여 Darke & Freedman(1997)는 행운에 대한 신념 질문지를 고안하였다. 행운에 대한 신념의 조작적 정의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고 있는 견해이다. 내적일치도(Cronbach's α)가 .85로 적합한 측정도구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행운에 대한 신념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Darke & Freedman(1997)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측정 항목을 채택하였다. 측정항목의 채택과 변안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 내용은 '운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운을 믿는다', '나는 자주 운이 좋은 날을 느낀다', '나는 꾸준히 운이 있다', '나는 운이 좋아 게임에서 이기는 편이다', '운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로 구성하였다.

3.2.2 유연기술 조작적 정의

Kim et al.(2014)은 Mitchell, et al.(1999)의 다섯 가지 유연 기술을 바탕으로 계획된 진로 유연 척도(PHCI;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를 통해 유연 기술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 측정문항과 유연기술 요인과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6에서 .90로 검증되어 본 연구에서 유연 기술 측정도구로 채택하였다.

유연기술 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표 3>과 같다.

전문가 자문과 변안을 통해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3> 유연 기술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조작적 정의	변수 정의	측정 문항
호기심	새로운 학습 기회를 탐색하는 기술	3
인내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3
유연성	환경에 맞게 태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3
낙관성	새로운 기회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 것	3
위험감수	불확실한 결과가 예측되어도 행동을 취하는 것	3

설문문항 내용으로 호기심은 '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흥미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활동에 관심이 있다', '나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호기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로 구성하였다.

인내성은 '나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도 인내심을 갖고 나의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어려움에 처해도 그 일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편이다', '경력을 위하여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해왔던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로 구성되었다.

유연성의 설문문항은 '나의 경력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의 직업만 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경로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경력이라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들로 구성하였다.

낙관성은 '나의 앞으로의 경력은 전망이 밝다', '나의 인생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나의 미래 경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로 구성되었다.

위험감수는 '나는 나의 경력을 추구하는데 어느 정도의 위험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도전하는 편이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을 추구할 것이다' 들로 구성하였다.

3.2.3 기회 역량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Man, et al.(2002)은 창업역량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개인적인 헌신, 전략 구성, 조직화, 개념화, 관계 형성, 기회인식 및 개발이다. 기회역량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의 기회를 인식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Morris, et al.(2013)은 Man, et al.(2002)이 정의한 기회역량을 다시 기회인식과 기회평가로 재정리하였다. 최민정(2016)은 Morris, et al.(2013)의 구성 변수 문항을 활용하여 기회인식 및 기회평가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민정(2016)의 기회인식 및 기회평가 역량 측정문항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총 7개 문항을 채택하였으며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시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회 역량 측정 문항으로 도출하였다.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4> 기획 역량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조작적 정의	변수 정의	측정 문항
기획역량	검색과 연결을 통해 잠재수익이 높은 변화된 상황 또는 간과된 가능성을 지각하는 능력	4
	기획의 내용 구조를 평가하여 상대적인 매력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능력	3

설문문항 내용은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상호작용한다’, ‘나는 정보를 찾을 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종종 다양한 정보 간의 독창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새로운 관련성을 감지한다’, ‘나는 이전에는 관련 없던 분야 간의 연관성을 자주 찾아낸다’, ‘나는 잠재적인 사업기회에 대한 직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수익성 있는 사업기회를 감지하는 비상한 능력이 있다’, ‘나는 가치가 낮은 사업기회는 제외하고 가치가 높은 사업기회만 골라낼 수 있는 재주가 있다’로 구성하였다.

3.3 조사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경기지역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총 373개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답변과 결측치가 많은 41개 자료를 제외한 332개의 유효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다항목 척도 간의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고, 측정 모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 또는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다.

셋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모형 적합도와 설명력을 검증하고 경로분석을 실행하여 가설 1, 2를 검증하고 가설 3의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방법을 활용하였다.

IV.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설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 구성이 필요하다. 특정 연령대나 최종학력, 경험직업, 평균 소득, 창업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행운에 대한 신념이 기획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본의 분포는 남자가 208명(62.7%), 여자 124명(37.3%)이었

다. 연령대는 직업 및 창업관련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20대 70명(21.1%), 30대 152명(45.8%), 40대 88명(26.5%)가 많았다.

최종학력은 현실적인 구성을 반영하여 고졸 22명(6.6%), 학사 208명(62.7%), 석사 85명(25.6%), 박사 12명(3.6%)이었다.

창업경험자는 139명(41.9%), 비창업자는 193명(58.1%)으로 균등한 구성을 보였다. 총 332개 응답을 표본으로 한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표본수 (명)	비율 (%)	특성	구분	표본수 (명)	비율 (%)
성별	남자	208	62.7	경험 직업	0개	13	3.9
	여자	124	37.3		1개	108	32.5
연령	20대	70	21.1		2개	75	22.6
	30대	152	45.8		3개	68	20.5
	40대	88	26.5		4개 이상	68	20.5
	50대	21	6.3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9
	60대	1	.3	100~200만원		30	9.0
최종 학력	고졸	22	6.6	200~300만원		65	19.6
	전문 학사	5	1.5	300~400만원		59	17.8
	학사	208	62.7	400만원 이상		139	41.9
	석사	85	25.6	창업 경력	비창업	193	58.1
박사	12	3.6	1~2년		78	23.5	
창업 경력	1~2년	78	23.5		3~4년	25	7.5
	3~4년	25	7.5		5~6년	17	5.1
	5~6년	17	5.1		7년이상	19	5.7
	7년이상	19	5.7				

4.2 측정모형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

측정모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측정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표본적합도를 판단하는 KMO 측도가 0.9 이상, 구형성(Test of Sphericity)을 검증하는 Bartlett 근사카이제곱(Approximated- χ^2) 값이 5%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과 요인추출을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고유값(eigenvalue) 1.0이상이면서 카이제 규칙(Kaiser rule)이 있는 직각회전인 배리맥스(Varimax) 회전요인의 적재량(factor loading)이 0.5이상인 측정변수들을 선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행운신념은 최초 7개 문항에서 5개 측정문항으로, 우연기술은 낙관성 3개, 호기심 3개, 인내성 3개, 유연성3개, 위험감수성 3개 모든 문항이 타당성 검증이 되었고, 기획역량 7개 측정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측정문항에 대해 AMOS 22.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고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집중 또는 수렴 타당

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이용하였다. 수렴 타당성은 구성개념에 대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등에 의하여 검증(Fomell & Larcker, 1981; 이학식·임지훈, 2009)하였다. 이학식·임지훈(2009)과 강병서·김계수(2009)에 따라 측정변수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을 평가기준으로, 구성개념에 대하여 측정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하는 평균분산추출은 0.5 이상을 평가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잠재변수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내적일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Cronbach's Alpha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Cronbach's Alpha값이 0.7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6> 잠재변수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지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화요인 부하량	Construct Reliability	AVE	Cronbach's Alpha
행운 신념	행운 신념 2	.818	.891	.626	.871
	행운 신념 4	.699			
	행운 신념 5	.858			
	행운 신념 6	.564			
	행운 신념 7	.867			
호기심	호기심 1	.757	.879	.708	.796
	호기심 2	.810			
	호기심 3	.701			
인내성	인내성 1	.740	.886	.721	.799
	인내성 2	.786			
	인내성 3	.747			
유연성	유연성 1	.695	.850	.655	.734
	유연성 2	.689			
	유연성 3	.758			
낙관성	낙관성 1	.799	.923	.800	.881
	낙관성 2	.867			
	낙관성 3	.876			
위험감수	위험감수 1	.725	.857	.668	.809
	위험감수 2	.843			
	위험감수 3	.746			
기회역량	기회역량 1	.558	.918	.617	.898
	기회역량 2	.708			
	기회역량 3	.768			
	기회역량 4	.773			
	기회역량 5	.813			
	기회역량 6	.831			
	기회역량 7	.760			

<표 6>와 같이 측정모형의 각 잠재변수의 AVE 값이 0.5이상이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0.558-0.867 사이의 값이며(0.7 이상이 바람직함), Bootstrapping(Number of Bootstrap Samples: 500)을 수행한 후 결과인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이 0.7이상이므로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간의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는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나타냈다. <표 4>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에서 평균 분산 추출(AVE) 제곱근 값이 잠재변수간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상관관계와 판별타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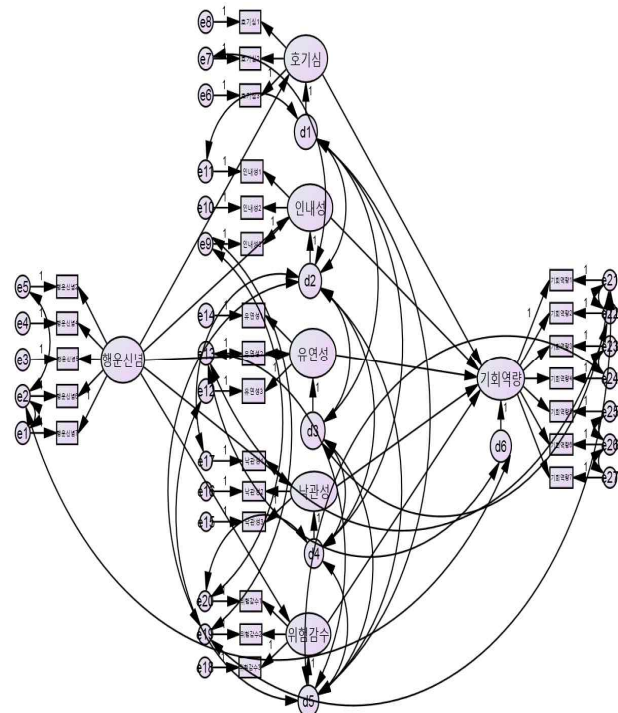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행운 신념	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AVE의 제곱근
행운 신념	3.1825	.75927	1						.791
호기심	4.2098	.62332	.231**	1					.841
인내성	4.0653	.61049	.200*	.635**	1				.849
유연성	4.1124	.59601	.275**	.550**	.411**	1			.809
낙관성	3.9789	.71938	.430**	.561**	.559**	.483**	1		.894
위험감수	3.5984	.73881	.207**	.502**	.571**	.445**	.589**	1	.817
기회역량	3.3270	.71296	.328**	.484**	.553**	.394**	.576**	.635**	.785

* : p<.05, ** : p<.01, *** : p<.001

4.3 가설 1, 2의 검정

4.3.1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

가설 1, 2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을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Modification Indices를 활용하여 최종 수정된 모델은 <그림 2>와 같다. 우선 분석된 최적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그림 2> 최종 수정 모델

살펴보면, $\chi^2=424.829$ (자유도=283), $\chi^2/d.f.=1.501$, SRMR=0.0521, GFI=0.915, IFI=0.971, AGFI=0.887, CFI=0.915 으로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추천된 기준을 만족하여 본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학식·임지훈, 2009).

<표 8> 구조 모델 경로분석

관 계	SMC (R ²)	경로계수 (C.R.)	비고
행운 신념 → 호기심	.091	.301*** (4.6000)	유의적
행운 신념 → 인내성	.070	.264*** (4.089)	유의적
행운 신념 → 유연성	.101	.317*** (4.879)	유의적
행운 신념 → 낙관성	.233	.317*** (4.879)	유의적
행운 신념 → 위험감수	.070	.317*** (4.879)	유의적
호기심 → 기회 역량	.377	.102 (1.809)	비유의적
인내성 → 기회 역량		.238*** (3.902)	유의적
유연성 → 기회 역량		.042 (.738)	비유의적
낙관성 → 기회 역량		.287*** (4.712)	유의적
위험감수 → 유연성		.376*** (5.365)	유의적

SRMR=.0521, GFI=.915, IFI=.971, AGFI=.887, CFI=.915

* : p<.05, ** : p<.01, *** : p<.001

4.3.2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구조 모델 경로분석 결과 <표 8>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행운 신념이 5개 우연기술(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에 미치는 것은 Critical Ratio 값이 모두 95% 수준 값인 1.96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규명하였다. 우연기술 중 호기심과 유연성은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Critical Ratio 값이 95% 수준 값인 1.96보다 각각 작은 값으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인내성과 낙관성, 위험감수가 기회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Critical Ratio 값이 1.96보다 큰 값으로 모두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가설 3 검증

우연 기술은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을 매개할 것이라고 가설 3을 설정하였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먼저 행운에 대한 신념을 독립변인으로, 기회역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39.111, β =.326, p<.0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유의성,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유의성,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유의성이 검증된 변수를 중심으로 Baron & Kenny(1986)의 매개 회귀분석 3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0>와 같다.

<표 9> 행운에 대한 신념이 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기회 역량	행운에 대한 신념	.049	.326	6.254	.000**	1.000
	R=.326, R ² =.106, 수정된R ² =.103, F=39.111, p=.000, Durbin-Watson=1.462					

행운에 대한 신념을 독립변수로 하고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를 각 매개변수로 하여 기회역량을 종속변수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의 표준화된 β 값을 비교하였다. 매개변수가 인내성일 때 ‘모형1=.326>모형2=.251’, 매개변수가 낙관성일 때 ‘모형1=.326>모형2=.145’, 매개변수가 위험감수일 때 ‘모형1=.326>모형2=.229’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는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0> 행운 신념과 기회역량의 관계에서 우연기술의 매개 효과

매개효과 검증단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표준화된 β 값	t값	유의 확률	R ²
독립변수 → 종속변수	행운에 대한 신념	기회 역량	.326	6.254	.000**	.106
	행운에 대한 신념	기회 역량	.251	5.331	.000**	.295
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인내성	기회 역량	.441	9.337	.000**	
	행운에 대한 신념	기회 역량	.145	2.915	.004*	
	낙관성	기회 역량	.478	9.606	.000**	
	행운에 대한 신념	기회 역량	.229	5.098	.000**	.360
위험감수	기회 역량	.513	11.436	.000**		

*p<.05, **p<.01

4.5 가설 검증 요약과 시사점

이상에서 검증한 가설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의 결과로 볼 때 행운에 대한 신념은 우연 기술(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우연기술 중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는 기회역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연기술은 행운에 대한 신념이 기회역량에 영향을 주는 데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낙관성이 행운에 대한 신념에 매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Day & Maltby(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의 의의는 행운에 대한 신념과 우연 기술 그리고 기회 역량에 대한 경로 현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것과 기회역량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는 행운에 대한 신념을 높이고 인내성과 낙관성, 위험감수를 높이는 역량 강화 훈련이 유의할 것이라는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표 11> 검증한 가설 요약

검증한 가설		검증결과
가설 1	행운에 대한 신념은 우연 기술(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 행운에 대한 신념 → 호기심	채택
	1-2: 행운에 대한 신념 → 인내성	채택
	1-3: 행운에 대한 신념 → 유연성	채택
	1-2: 행운에 대한 신념 → 낙관성	채택
	1-2: 행운에 대한 신념 → 위험감수	채택
가설 2	우연 기술(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은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2-1: 호기심 → 기회역량	불채택
	2-2: 인내성 → 기회역량	채택
	2-3: 유연성 → 기회역량	불채택
	2-4: 낙관성 → 기회역량	채택
	2-5: 위험감수 → 기회역량	채택
가설 3	우연 기술은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을 매개할 것이다.	부분채택
	3-1: 행운에 대한 신념 → 호기심 → 기회역량	불채택
	3-2: 행운에 대한 신념 → 인내성 → 기회역량	채택
	3-3: 행운에 대한 신념 → 유연성 → 기회역량	불채택
	3-4: 행운에 대한 신념 → 낙관성 → 기회역량	채택
	3-5: 행운에 대한 신념 → 위험감수 → 기회역량	채택

본 연구 결과로 부터 도출되어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운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우연한 사건에 대해 우연기술을 통하여 기회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실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으면 운의 요행을 바라며 노력하지 않을 것 같다는 편견과 달리, 오히려 내적 통제 신념으로 인하여 더 낙관적이고 인내하며 위험감수성향이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운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행운에 대한 신념이 기회역량에 미치는 우연기술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우연기술의 의도적 개발 노력에 따라 기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창업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창업 보육 및 교육에 중사하는 교육 및 행정 담당자들은 창업에 있어서 핵심 역량인 창업 기회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행운에 대한 높은 신념을 가지고 우연 기술 중 인내성과 낙관성, 위험감수 성향을 높이도록 창업 훈련 프로그램 기획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창업 지원자 선발시 개인적 특성인 행운에 대한 신념과 인내성과 낙관성, 위험감수성에 대해 특별히 측정하는 것이 성공 창업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창업 지원 효과를 높이는데 좋은 가이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행운에 대한 신념이 우연기술의 매개역할로 기회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행운에 대한 신념과 우연기술의 연관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 근거들을 도출하였다.

내적 통제의 신념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성취동기를 갖게 하여 성공은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든다. 성공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여 도전하게 된다. 그 반대의 외적 통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성공을 과제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고 여기게 되어 성취동기나 노력이 적어진다. 행운의 신념이 낮은 사람은 귀인이론에 따라 노력과 행운을 통제 불가능한 불안정성 요인으로 보지만 행운의 신념이 높은 사람은 노력과 행운을 안정성 요인으로 생각한다. 행운의 신념이 높은 사람은 운을 통제하여 미래의 우연한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어 긍정적인 목표 지향의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은 사람은 더 낙관적이고, 어려움을 인내하고 위험감수성향이 높다고 관찰되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은 우연한 사건을 기회로 인식하는 개방적 태도를 지닌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행운에 대한 신념은 기회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운에 대한 신념은 우연 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모두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연 기술의 하위요인 중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만이 기회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는 행운에 대한 신념과 기회역량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표본추출 방법에 있어 편의 표본 추출에 따른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행운에 대한 신념, 우연기술, 기회역량의 관계에 대해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측정 항목이나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회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연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설 검증 분석 방법에 있어서 구조방정식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로는 비창업자와 창업자의 행운에 대한 신념, 우연기술, 기회역량에 대한 비교 연구, 행운에 대한 신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과의 비교 연구 등 보다 발전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REFERENCE

강병서·김계수(2009).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강이철·정은식(2006). 화학교육에서 우연적 발견능력(serendipity) 활성화 방안. *2006 연차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강재학·하규수(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4), 1-12.

김보영·양나연·양혁·양준영·정성훈·이상민(2016). 계획된 우연 이론에 기반한 성격 5요인과 우연 기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91-508.

마크 뷰캐넌 외(2017). *뉴사이언티스트(기획)*. *우연의 설계* 김성훈 옮김, 서울: 반니,

문수영·황보윤(2011). 청년창업가의 창업기회원천 분석 및 기회탐색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6(4), 39-57.

이병관·이국희(2015). 행운과 불운이 모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지과학*, 26(3), 279-300.

이학식·임지훈(2009).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AMOS 16.0*. 서울; 법문사.

사이토 히토리(2012). *부자의 운* (하연수 옮김), 서울; 다산북스,

짐 콜린스(2002).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무열 옮김), 서울; 김영사.

최민정(2016).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기회인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토머스 J. 스탠리(2014). *부자들의 선택* (장석훈 옮김). 서울; 북하우스

Anderson, C. A.(1983). The causal structure of situations: The generation of plausible causal attributions as a function of type of event sit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185-203.

Ardichvili, A., & Cardozo, R. N.(2000). A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process.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8(2), 103-119

Ardichvili A., Cardozo R., & Ray S.(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05-123.

Arkes, H., Herren, L., & Isen, A.(1988). The role of potential loss in the influence of affect on risk-taking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2, 181-193.

Baumgardner, S. R.(1977). Vocational planning: the great swindle.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6(1), 17-22.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rooks, M(2017). *The Science and Secrets of Luck, Randomness and Probability*. (Kim, S.H. Translation), Banni, Seoul; Korea.

Casson, M.(1982). *The Entrepreneur*. Barnes and Noble Books, Totowa, NJ.

Choi, M. J.(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valua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ang University, Seoul, Korea.

Betsworth, D. G., & Hansen, J. I. C.(1996). The categorization of serendipitous career development ev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91-98.

Collins, J.(2002). *Good to Great*. (Lee, M.Y.). translation, Kimyoungsa; Seoul, Korea.

Choi, Y. K., & Chung, S. W.(2010). The Role of an Entrepreneur's Human/Social Capital in Opportunity Exploitation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3(1), 49-68.

Darke, P. R., & Freedman, J. L.(1997). The belief in good luck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486-511.

Day, L., & Maltby, J.(2003). Belief in good luck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optimism and irrational beliefs. *Journal of Psychology*, 137(1), 99-110.

Dunbar, K., & Fugelsang, J.(2005). Causal thinking in science: How scientists and students interpret the unexpected. In M. E. Gorman, R. D. Tweney, D. Gooding & A. Kincannon (Eds.), *Scientific and Technical Thinking*, Erlbaum, 57-79.

Hitory, S.(2012). *The Luck of the Rich*. (Ha, Y. S. Translation), Seoul; Dasan Books Korea.

Jiang, Y., Cho, A., & Adaval, R.(2009). The unique consequences of feeling lucky: Implications for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9, 171-184.

Kang, B. S., & Kim, K. S.(2009). *Statistical Analysis for Social Science*. Han-Nare Academy, Seoul.

Kang, E. C., & Jeong, E. S.(2006). *Strategies for Boosting Serendipity in Chemistry Education, 2006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inking Development proceedings*. Seoul; Korea.

Kang, J. H., & Ha, K. S.(2015). A Study of Effect of Self-Leadership by College Student on Recognition of Opportunity on Establishment of Company and Will of Establishing Company: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4), 1-12.

Keinan, G.(1994). Effects of stress and tolerance for ambiguity on magic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8-55.

Kim, B., Jung, S. H., Jang, S. H., Lee, B., Rhee, E., Cho, S. H., & Lee, S. M.(2014).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3), 239-253.

Kim, B., Yang, N. Y., Yang, J. Y., Chung, S. H., & Lee, S. M.(2016).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 Theoretical Explor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logy*, 28(2), 491-508.

Kirzner, I. M.(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Kirzner, I. M.(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60-85.
- Langer, E. J.(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11-328.
- Lee, B. K., & Lee, G. H.(2015). The Exploratory Study for the Effect of Good and Bad Luck on Risky Decision: Perspective of Probabilistic Framing Effect.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6(3), 279-300.
- Lee, H. S., & Lim, J. H.(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 AMOS 16.0*. Beobmunsa, Seoul.
- Lounsbury, J. W., Loveland, J. M., Sundstrom, E. D., Gibson, L. W., Drost, A. W., & Hamrick, F. L.(2003). An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 to career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287-307.
- Man, T. W., Lau, T., & Chan, K. F.(2002).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 conceptualization with focus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2), 123-142.
- Mitchell, K. E., Levin, A. S., & Krumboltz, J. D.(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2), 115-124.
- Moon, S. Y., & Hwangbo, Y.(2011). An Exploratory Study on Start-up Opportunity Sources Analysis and Opportunity Search of Korean Young Entrepreneurs: Focused on a participants of Seoul 『Young Entrepreneurs 1000 Projec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6(4), 39-57.
-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 Nicholson, N., Soane, E., Fenton-O'Creevy, M., & Willman, P.(2005). Personality and domain specific risk taking. *Journal of Risk Research*, 8(2), 157-176.
- Nickerson, R. S.(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S.(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1), 5-37.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1-28.
- Rojewski, J. W.(1999). The Role of chance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individuals with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22(4), 267-278.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chumpeter, J.(1934).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 Row, New York.
- Smith, M. D., Wiseman, R., & Harris, P.(1997a). Perceived luckiness and the UK National Lottery. *Proceedings of Presented Papers: The Parapsychological Association 40th Annual Convention*, 387-398.
- Smith, M. D., Wiseman, R., Machin, D., Harris, P., & Joiner, R.(1997b). Luckiness, competition, and performance on a psi task. *Journal of Parapsychology*, 61, 33-43.
- Sims, J. H., & Baumann, D. D.(1972). The tornado threat: Coping styles of the north and south. *Science*, 176, 1386-1391.
- Stanley, T.(2014). *The Choices of the Rich*, (Chang, S. H. Translation). Seoul; Korea; Book House.
- Taylor, S. E., Lerner, J. S., Sherman, D. K., Sage, R. M., & McDowell, N. K.(2003). Are self-enhancing cognitions associated with healthy or unhealthy biological profi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605-615.
- Weiner, B.(1972). *Theories of motivation: From mechanism to cognition*. Chicago: Rand McNally.
- Weiner, B.(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Wiseman, R.(2004). *The Luck Factor: The Scientific Study of the Lucky Mind*. London: Arrow books.

Medit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between the Belief in Good luck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Hwangbo, Yun**
Kim, YoungJun***
Kim, Hong-Tae****

Abstract

When asked about the success factors of successful entrepreneurs and celebrities, he says he was lucky. The remarkable fact is that the attitude about luck is different.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belief that we believe is lucky is actually a dominant concept, there has not been much scientific verification of luck.

In this study, we saw good luck not being determined randomly by the external environment, but by being able to control luck through the internal attributes of individuals. This study is significant that we have empirically elucidated what kind of efforts have gained good luck, whereas previous research has largely ended in vague logic where luck ends up with an internal locus of control among internal entrepreneurial qualities and efforts can make a successful entrepreneur.

We introduced the concept of good luck belief to avoid confirmation bias, which is, to interpret my experience in a direction that matches what I want to believe, and used a good luck belief questionnaire in previous studies and tried to verify that those who have a good belief can increas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apability through planned happenstance skills. The reason for choosing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apacity as a dependent variable was based on the conventional research, that is, the process of recognizing and exploiting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entrepreneurship research.

For empirical research,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a total of 332 people,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urned out that the belief of good luck has all the positive impa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sub-factors: curiosity, patience, flexibility, optimism and risk tolerance. Second, we have shown that only the perseverance, optimism, and risk tolerance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sub-factor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is opportunity capability. Thirdly, it was possible to judge that the sub-factor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patience, optimism, and risk tolerance, had a meditating effect between belief in luck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apability.

This study is highly significant in logically elucidating that people in charge of business incubation and education can get the specific direction when planning a training program for successful entrepreneur to further enhance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ability, which is an important ability for the entrepreneur's success.

Key Words: Belief in Good Luck, Planned Happenstance Skills,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apability

* In this paper, we have used data from the paper presented by Kim& Hwangbo(2017) at Spring Academic Conference of BVEA

** Author,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yun88@kookmin.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youngkim@korea.ac.kr

**** Co Author,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legendof97@naver.com